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이번 주 미 경제 지표, 10월 기준 금리 높일 듯
- WSJ: 트럼프의 역효과 낸 정책들, 금리와 물가 상승 부추겼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금리 역전 가능성, 위험 요인으로 부상

[물류]
- WSJ: 치솟는 물류비, 미 경제 전반에 부담준다

[에너지/원자재]
- Bloomberg: 트럼프, 바이든 정부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착수
- WSJ: 미·이란 외교 난항에 유가 다시 상승
- Bloomberg: 사우디 주요 송유관, 수리 마치고 수출 재개
- WSJ: 도이치방크 "구리 가격 50% 급등…파운드당 $10 전망"

[트럼프 관세]
- Bloomberg: 미·중, 품목 6백억 달러 규모 관세 인하

[중국 경제]
- CNBC: 중국 8월 산업계 기업 수익 4.2% 증가… 올해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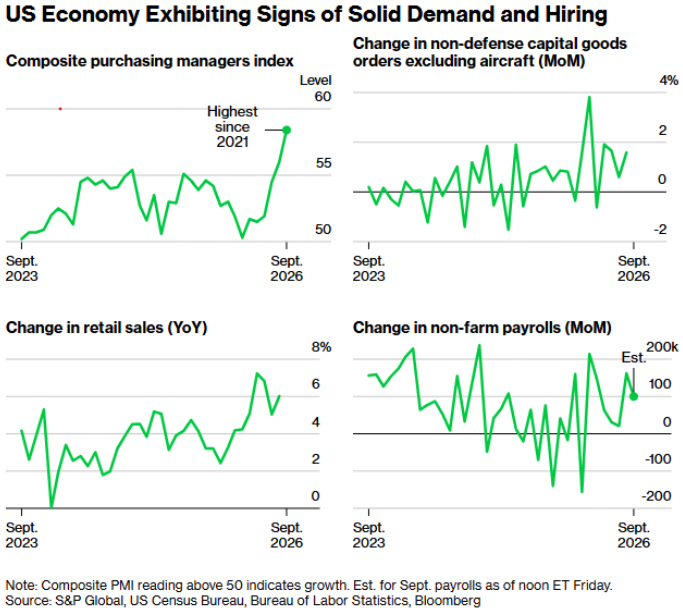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Key US Data This Week Seen Bolstering Case for October Rate Hike
이번 주 미 경제 지표, 10월 기준 금리 높일 듯

- 이번 주 발표될 주요 지표는 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며 연준의 금리 인상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 수요일 공개되는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 소비 지출도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요일 발표되는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역시 노동 시장의 견조함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11월 중간선거 직전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연준은 높은 차입 비용이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사

WSJ: The Moves That Backfired on Trump and Drove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Higher
트럼프의 역효과 낸 정책들, 금리와 물가 상승 부추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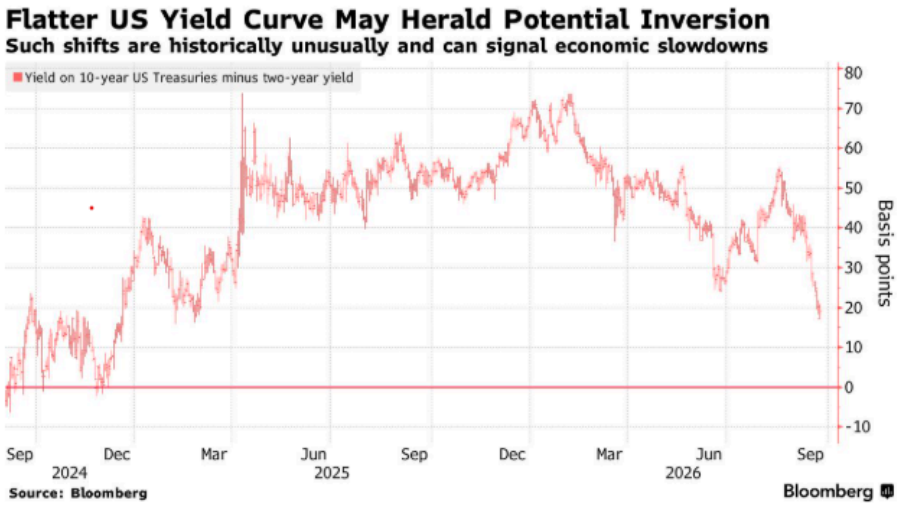
- 재정 지출 축소와 규제 완화로 물가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정책적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 투자자들이 견조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차질, 물가 상승세를 반영하면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오늘 월요일 현재 5.235%.
- 이에 따라 케빈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이란과의 전쟁 및 AI 중심 경제 열풍에 따른 여파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An Inversion of the US Yield Curve Becomes New Risk as Fed Hikes
미 국채 금리 역전 가능성, 위험 요인으로 부상

-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침체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가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 지난주 미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 간의 격차는 0.17%포인트 까지 바짝 줄어들었다. 물론 오늘 목요일 오전에는 0.3%로 조금 벌어졌다.
-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Yield Curve Inversion)'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장단기 금리 역전은 지난 8차례의 경기 침체 직전에 예외 없이 발생했던 대표적인 경기 불황 징후다.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의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결국 경제 성장이 꺾일 것으로 전망할 때 발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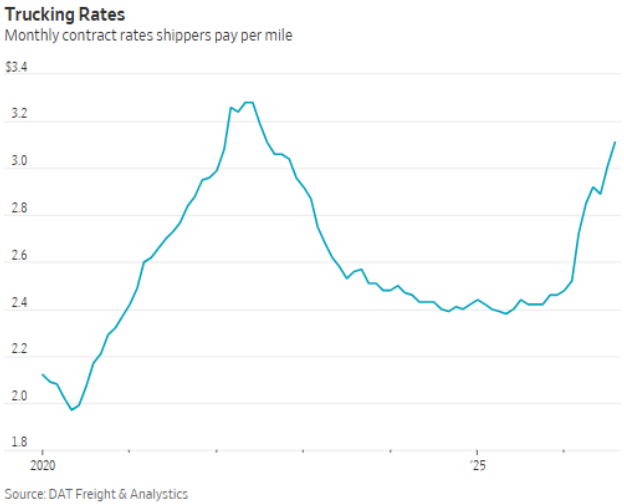


기사

[물류]

WSJ: Soaring Transport Costs Spread Through U.S. Economy
치솟는 물류비, 미 경제 전반에 부담준다

- 운송비 부담이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미국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트럭 운송비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1년간 디젤 가격은 77% 폭등했다. 컨테이너 운임과 철도, 페덱스(FedEx), USPS 배송료도 일제히 올랐다.
- 기사 부족 현상도 운송비 상승을 자극했다. 연방 교통부는 2025년 초 이후 영어 시험에 미달한 운전기사 28,000명 이상을 면허 정지시켰다.
- 한편 이란 전쟁 이후 디젤 가격 폭등으로 주 6일간 하루 500마일을 달리는 운전기사는 연료비로만 15,000달러를 추가 부담했다.



기사

[에너지/원자재]

Bloomberg: Trump Set to Roll Back Biden-Era Auto Fuel Economy Standards
트럼프, 바이든 정부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착수

-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엄격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2031년형 차량의 연비 기준은 기존 갤런당 약 50마일에서 갤런당 34.5마일로 대폭 낮아진다.
-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계 석유 업계에는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사

WSJ: Oil Prices Rise as U.S.-Iran Talks Face Fresh Hurdles
미·이란 외교 난항에 유가 다시 상승

-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다시 난관에 부딪히고 중동의 에너지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월요일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 11월물 브렌트유 선물은 3% 오른 배럴당 $107.5, 서부텍사스산원유는 2.7% 오른 배럴당 $94.88를 기록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협상 재개를 위해 7일간 휴전하자는 이란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편 사우디 방공망은 토요일 사우디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Khamis Mushait를 향해 발사된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파괴했다.

기사

Bloomberg: Saudi Arabia’s Key Oil Pipeline Starts Exports After Repairs
사우디 주요 송유관, 수리 마치고 수출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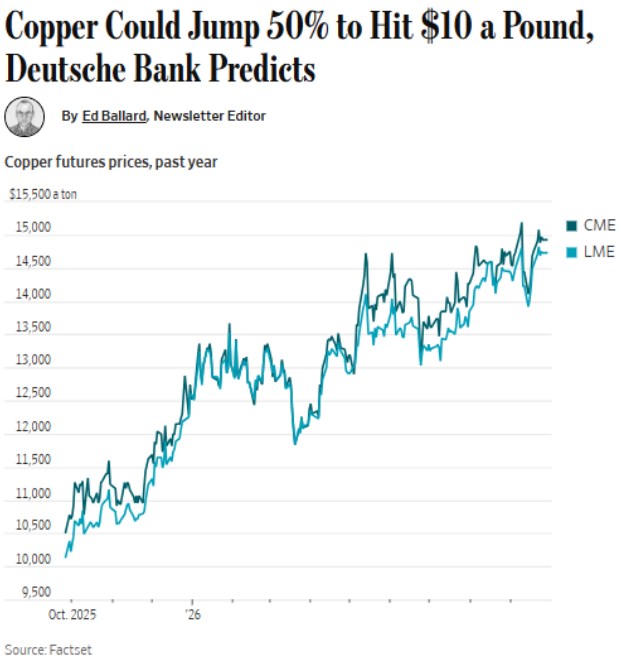
- 이달 초 드론 공격으로 손상되었던 사우디의 내륙 동서 횡단 주요 송유관이 복구 작업을 마치고 원유 수출을 다시 시작했다.
- 현재 해당 송유관의 수송량은 하루 약 350만 배럴에 달하며, 전체 수송 용량은 하루 약 700만 배럴 규모다.
- 이번 송유 재개로 사우디는 이란과의 전쟁 기간 활용해 온 우회 수출 경로(사우디 내력 동서 송유관)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으며, 공급 확대를 원하던 원유 구매자들의 숨통도 트이게 될 전망이다.

기사

WSJ: Copper Could Jump 50% to Hit $10 a Pound, Deutsche Bank Predicts
도이치방크 "구리 가격 50% 급등…파운드당 $10 전망"

- 미·중의 역대급 구리 비축 경쟁으로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10(톤당은 $22,050)까지 50% 급등할 것이라고 도이치방크가 전망했다.
- 이 은행은 양국이 올 연말 세계 구리 공급량의 71%를 점유하며 2028년 말에는 세계적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가격 상승으로 저렴한 알루미늄 대체 수요가 늘어나 최악은 면하겠지만, 2027년 2분기까지 가격 급등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기사

[트럼프 관세]

Bloomberg: US, China to Cut Tariffs on $60 Billion of Non-Sensitive Goods
CNBC: China posts weakest industrial profit growth this year, expanding 4.2% in August
미·중, 품목 6백억 달러 규모 관세 인하

- 미국과 중국이 양국 수출품 각각 300억 달러씩, 총 600억 달러 규모의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인하 대상에는 중국산 완구·가전제품과 미국산 농산물 등이 포함되며, 대상 품목의 약 90%에 최혜국(MFN) 대우가 적용된다.

-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를 통해 성사된 이번 조치는 양국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효되며, 미·중 경제 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중국 경제]

CNBC: China posts weakest industrial profit growth this year, expanding 4.2% in August
중국 8월 산업계 기업 수익 4.2% 증가… 올해 최저치 기록

- 중국의 8월 산업계 기업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는 데 그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던 2025년 11월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 치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업의 이익이 전년 대비 16% 급감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이번 실적 발표는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는 견조한 이익 성장세가 나타난 반면, 소비재 관련 산업은 이익이 감소하는 등 중국 경제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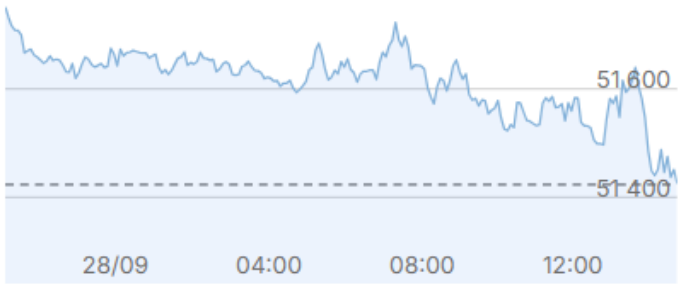
기사

[KMI 공급망 브리]

-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 정세는 이란의 7일 내 재개방안 제시, 미·이란 고위급 회담, 사우디 송유관 재가동 등 완화 신호와 화물선 피격, 후티의 사우디 공격,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거부 등 압박 요인이 공존했다.
- 9월 27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달 두 번째 미군 무인 잠수정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란은 트럼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호르무즈 위기와 별개로, 우크라이나군은 9월 21일 역대 최대 규모 드론 1,000여 기를 러시아에 발사했으며,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으로 디젤 가격이 기록적 수준으로 급등했다 [92] [93] .
- 흑해

- 9월 24일에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곡물 수출 차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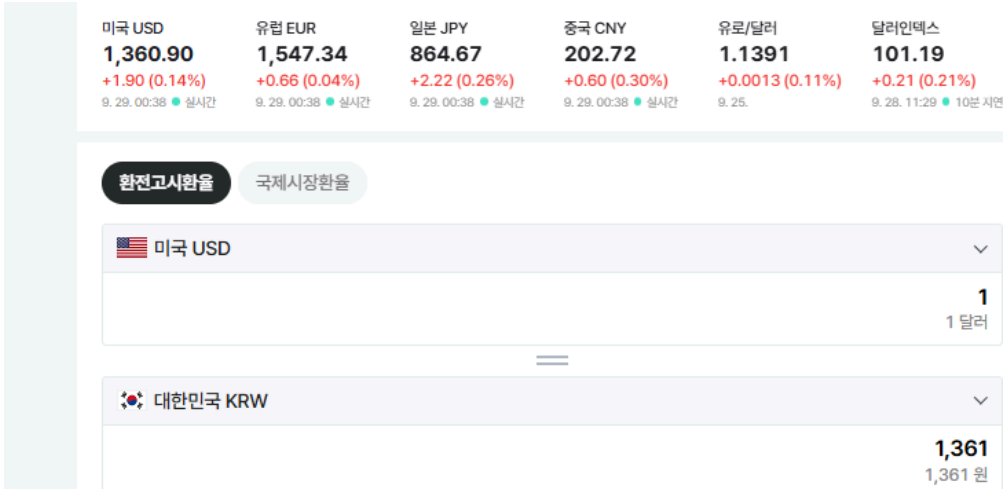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1,479.10	-349.5	-0.67%
US 500	7,677.70	-65.8	-0.85%
Dow Jones	51,440.28	-388.34	-0.75%
S&P 500	7,685.60	-57.90	-0.75%
Nasdaq	26,836.38	-232.34	-0.86%
S&P 500 VIX	16.36	+1.49	+10.02%
Dollar Index	100.925	+0.217	+0.22%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1 1/32	5.578	0.082
10-Year Note	4.625	-8/32	5.270	0.105
7-Year Note	5	-28/32	5.182	0.104
5-Year Note	5	-26/32	5.100	0.104
3-Year Note	4.375	-3/32	5.038	0.101
2-Year Note	4.75	-2/32	4.953	0.085
1-Year Bill	0	2/32	4.552	0.075
6-Month Bill	0	1/32	4.401	0.031
3-Month Bill	0	0/32	4.193	0.010
1-Month Bill	0	0/32	3.966	0.010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